

지 상 법 석

마음 밝히는 도리 열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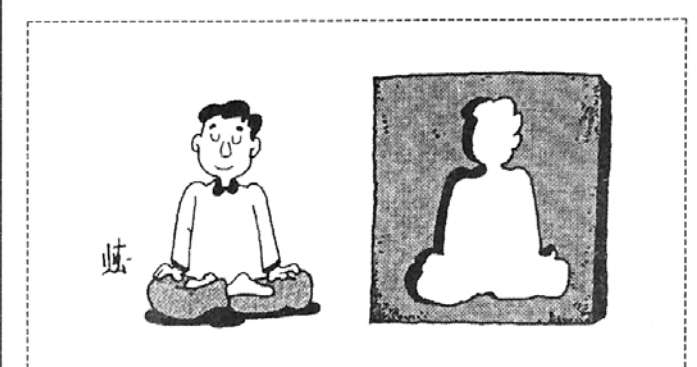
“옛 어른 가르침에 나를 비춰보고
오늘의 나를 옛 어른 가르침에 비춰보라”

수 있는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다시 돌려, 불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닌 것을 알아 합니
다. 양면을 잘 보면 하나로 통하고 그 하나
마저 버리면 그 자리에 기쁜 소식이 있습
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한 말씀만 들어도
그 앞에서 모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
님의 법은 만대의 중생에게 고르게 적용되
는 절대진리 그 자체인데 세월이 가고 시
절인연이 변할 수록 그 가르침을 즉각적
에 깨닫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구생론(法久生論)라. 법이 오래갈수록
깨닫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그 법이
변하여 깨닫기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법은 법으로 영원한데 시절인연이 변화하
여 깨닫는 법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님들이 화두를 내리는 걸

(語錄)은 조사님들의 말씀입니다. 그
어른의 가르침에 오늘의 나를 비춰 보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화두란 의심입니다. 화두 그 자체를 의심
하는 것이고 나를 의심하는 것이고 부처와
조사를 의심하는 것이고 법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큰 의심이 큰 진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듣는 것은 의심을 시작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풀리면 끝만
세행이 다 내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마난 화두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
은 사람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 의심을
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려, ‘파자소암(婆子燒庵)’이라는 것입
니다.
옛날에 한 노파가 젊은 스님 한 명을 모
셔다 암자를 지어 주고 의식을 받들며

고 정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초보심자경
문>도 ‘종사나 법사의 법문이 어렵고 거칠
더라도 그것을 허물잡지 말고 잘들으면 얻
을 것이 많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렵다느니 쉽다느니 화두라느니 경전이
라느니 이런 것을 더 말해도 불교는 오직
마음 심자(心字) 한 자를 아는데 그 구경
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아는 것이 법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구경목표라
면 화두의 최종 목표이고 경전의 최종 목
표인 것입니다. 마음을 아는 것이 법계를
아는 것이니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명심경상에 이르는 세가지 목표가 또 있
으니 그 구체적인 목적을 이루면 구경의
목표에 도달한다 할 것입니다. 전미개오(轉

에서 마음 밝히는 대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지어졌고 마음으로
멸합니다. <화엄경>의 응광법계성 일체유심
조(應觀法界性一切唯心造)라는 의미만 제
대로 알고 있어도 명심경상의 한발은 내디
딘 것입니다. 한발을 내디딘 사람이 백발
천발 만발을 가는 것입니다. 법계의 모든
것을 관하여 보면 일체가 마음으로 지어졌
다고 했으니 마음을 밝혀 알면 법계의 온
전한 상품 도리를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반야심경>의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역시’도 다
마음으로 이뤄진 법계를 말하고 있는 것
입니다. 색과 공이 다 마음에 있는 것이니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일 수 밖에요.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를 자주 얘기합니
다. 탐진치 오욕락의 욕계나 물질의 세계
인 색계나 물질은 아니되 정신의 세계인
무색계나 다 마음의 작용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지경에서 보면 몸(물
질)이 있어서 정신이 있는 것이고 몸이 없
어지면 정신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세계를 부정합니
다. 그곳에 가 봤느냐고 대꾸하거든요. 집
착의 물질계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입니
다. 그래서 윤회론이 나오고 공상주의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공부하는 보살은 ‘...원리진도
공상 구경열반...’이
라고 경전을 설한
다. 분별지에 의해
사리관단을 하는 보
통사람들은 이치를
거꾸로 보기도 하며
진리를 모르기에 쓸
대없이 예를 풀이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으나 분별지를 넘어서 반야로
비추어 보는 보살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며 진리를 알기에 열반에 든다는 뜻이
다.
분별지로 보는 세계는 이중성으로 나
타나며 이 이중성 중 우리는 일부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번 설명했으므로 여
기서는 열반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불교
의 특징은 ‘공’ 사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
반야이고 공을 체득한 인간이 가지는 궁
극적인 지리가 열반
이라는 뜻에서 반야
반야와 열반
모두가 연결된 하
나임을 모르고 너
와 나를 나누어 나
만을 위해 그릇된
욕망을 불태울 수
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나를 불행
케 하기에 그릇된
욕망의 불길이 꺼
진 상태가 행복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것이 열반의 참된
의미다. 그래서 반야와 열반을 분리시켜
말할 수는 없다. 반야로 보는 마음의 상
태가 곧 열반이요, 열반에 든 마음이 보
는 지혜가 곧 반야다.
반야와 열반은 분별지로 보는 사람이
말이나 글로써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반야나
열반의 상태가 어떻다하는 것을 그려서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깨달았다고만 말
한다.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천당과 극
락을 그려낸다 하더라도 결국엔 전도봉
상하는 마음이 추구하는 그릇된 욕망이
충족된 상태를 그려낼 뿐이다. 새들이
지저귀는 낙원에
빈곤을 모르고 아
있는 그대로 보며 욕망불길 꺼진 상태
‘공’을 비추어 볼수 있는 둘 아닌 한 경지
와 열반이 불교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
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불교도 믿
음을 중요시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초월적인 신에 대한 신앙을 주장하지도
않고 신의 은총으로 얻게 되는 천당이나
극락을 최고의 은혜나 복락으로 여기지
도 않는다. 반야로 비추어 견성성불하고
열반에 들 것만을 주장한다. 부처를 최
고의 자리로 말하면서도 부처님을 신앙
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는다. 선업의 결
과로 얻게 되는 극락에 관해 얘기하면서
도 극락마저 선업 다하면 없어지고 말
한 때의 꿈으로 여긴다. 반야가 없으면
올바로 살릴 수 없기에 전도몽상이 일어
나 얻은 것도 곧 잃게 된다는 뜻에서다.
사실 너와 내가 하나로 된 자리에서 볼
것이 따로 없다는 ‘공’ 사상이서 열
매 천당과 극락도 별것이 아닐 수 밖에
없지만 지혜 즉 반야를 최고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불교가 무엇을 추구
하는지 알 수 없기도 할 것이다.
열반이란 불교적 성인이 육체적 삶을
마감할 때 보통 쓰는 말이지만 불에 탄
재와 같이 다시는 욕망의 불길이 일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 욕망이란
그 자체로서 나쁘거나 좋거나 하는 성
질의 것은 물론 아니다. 반야가 없

팔만사천 법문 일체중생 근기따라 두루적용
들어서 믿고 배워서 이룰지니 ‘불심이 곧 공덕’

니다. 노파심절(老婆心切)로 만들어 내리는
화두에 의지해 일체의 번뇌와 사랑의 본별
을 끊어버린 진면목의 세계에 이르러는 것
입니다. 화두가 어려운 것은 바로 그 화두
에 매진하여 최상의 이치에 이르러는 것입
니다. 불교공부가 그렇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렵다 쉽다를 놓고 따지는 것
이 화두가 아닙니다. 화두란 그 속에 일체
법계의 길을 다 갖추고 있으며 팔만사천을
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현대에 비유되는 것은
그 가르침이 일체중생의 근기를 따라 두루
적용되기 때문이고 조사의 가르침을 활용
에 비유하는 것은 평평하고 곧은 땅을 강
조하기 위함입니다. 화두를 깨치는 것은 평
평한 활판의 긴장을 푼 끊어 버리는 활나
편의 법열의 온전한 체득입니다. <벽암록>
(무문관) (입제록) (염송)과 같은 책들은
하나같이 조사의 화두를 적어두고 있습
니다. 그 화두 속에 가득한 진리의 본체를
알아내는 일이 선수행의 목표입니다. 옛 어
른의 가르침에 나를 비춰 보고 오늘의 나
를 옛 어른의 가르침에 비춰보라(古교조심
古教照心) 심조고교(心照古教)고 했습니다.
‘경(經)’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어록

공부에 매진토록했습니다. 20년을 하루같이
스님을 공양하여 공부하게 한뒤 노파는
어느날 밥상을 딸에게 가져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은밀히 된가를 시켰습니다.
딸은 밥상을 가져다 스님 앞에 놓고 어미
가 시킨대로 스님에게 답답 안겨들었습니
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스님, 이럴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삼동(三冬)에 더운 기운이 있을리 없고
고목이 한 바위에 의지함이다.”
딸은 어미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
더니 이 노파는 노발대발하며 암자에 불을
지르고 스님을 쫓아 버렸습니다. “내가 여
태껏 큰 마구니를 키워구나”라는 탄식과
함께 말합니다. 참 이상한 노릇이 아닙니
까. 노파는 왜 그랬을까요. 의심이 나지 않
습니까.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두란 조사들이 파 놓은 허방다리(할
정)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야 참진리를 얻
을 수 있습니다. 까딱하면 길고깊은 허방다
리에 속 빠지고 맙니다. 잘 건너야 합니다.
반드시 의심하는 만큼의 깨달음이 있어 마
침내는 꽃이 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현
생에 그 꽃을 못 피우면 내생에 피울 수도
있으니 조급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노려하

迷開悟) 이
고득락(離苦
得樂) 지악
수선(止惡修
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미개오
란 미혹함을
벗어던지고
깨달음의 세
계를 열어내는 것입니다. 미혹은 집착에 휩
싸여 사랑분별하며 악업을 지을 뿐입니다.
그 미혹을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용기와 정
진이 없이는 마음을 밝힐 길이 없습니다.
이 고득락이란 모든 중생의 간절한 염원
입니다. 고통을 벗어 던지고 즐거움의 세계
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크면 클 수록
마음 닦아 해탈성불하려는 원력도 크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고통계
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악수선은 전미개오하고 이고득락하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할 도리입니다. 선업을
다지 않고 고통을 벗어날 수 없고 미혹을
깨달음으로 전환시킬 수 없습니다. 악업 짓
는 일을 그치고 선업 짓는 일에 매진하는

“모든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고
그 지은바 인연은 귀합니다
마음도리·귀한인연 지키는 일은
불자로서 바른 수행의 길”
나온 것 아닙니까. 서양에도 유심론이 있
지만 그 유심론은 불교의 일체유심조 도
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인 마음 속에 일
체가 있고 그 가운데 물질이 있고 이 몸도
있는 것이어서 공기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어 그 몸을 유지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고 오직 물질만 있다면 공기와 물과 음
식이 서로 합쳐져서 영영이 될 수 없을 것
이 아닙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
고 그 지은바의 인연이란 무척 귀한 것입
니다. 그 마음의 도리와 귀한 인연을 잘 지
키는 것이 불자로서 바른 길, 바른 수행
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명심개오란 거거
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중국어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연수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대상 : 한의사, 한약사,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 분
기간 :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 침치료, 기공동
연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수료증 수여
인원 : 10명 이내 선착순
출발일 : 1996년 12월22일(일)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화 : (02)511-2026~8

불교인들의 민심,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고독
이차임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부모님 상담 환영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함장 (법명: 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법화경 대강좌
일시 : 1996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90분간)
기간 : 6개월간(매주)
수강료 : 월 3만원
(교재와 테이프 무료 제공)
강주 : 혜경(惠耕) 큰스님
장소 : 무설정사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27-51
우편번호 : 142-076
전화 : 990-7598
1996.11.20
통신 수강도 가함
법화연수원 무설정사

불교달력
아직 달력을 맞추지 않으셨다면
불교달력 전문 인쇄공장으로
직접 주문 하십시오.
마음에 와 닿는
달력을 만나실것입니다.
연락주시면 견품 및 카다로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오장동 69-2
강진 정판사
전화 : (02)269-9755
FAX : (02)268-2391